

모바일 정보격차 심하다

스마트폰 이용률 평균 15.6%...취약계층 1.3% 불과

행안부, 1만7500명 조사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 취약계층은 8.3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계층의 인터넷 이용자는 절반에 못미쳤고 3명 중 1명은 PC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소외계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0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 일반 국민 1천500명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년층, 농어민 각 4천명 등 총 1만75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스마트폰 인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1.3%로 전체 국민(15.6%)에 비해 14.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이 100

이라고 가정하면 취약계층의 이용률 수준은 8.3%에 불과해 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4.3%로 두명 중 한명에 못미쳤고 PC 보유율은 3명 중 2명꼴인 67.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1.3%포인트와 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인터넷 용도별 이용률은 인터넷 쇼핑이 29.6%였고 인터넷 뱅킹 20%, 전자정부 16%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전체적인 정보화수준은 71.1%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했고 처음 정보격차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4년(45%) 대비로는 26.1%포인트 향상됐다.

계층별로는 장애인이 81.3%로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 80.5%, 장년층 67.5%, 농어민 61.8% 등으로 나타나 농어민 계층의 정보화 소외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

대로 정보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민 및 장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정보활용 수

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대~40대 절반 이상 'SNS' 이용

싸이월드 가장 많이 사용

국내 일반인 10~40대 절반 이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10명 가운데 7명꼴로 싸이월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온라인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10~40대 일반인 3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국내 SNS 이용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인 1550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싸이월드(67.5%), 트위터(14.1%), 페이스북(12.6%), 미투데이(3.7%) 순으로 나타났다.

싸이월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53.6%가 '내 인맥'이 있다는 점을 꼽았고, 트위터 이용자는 51.1%가 실시간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16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온라인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10~40대 일반인 3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국내 SNS 이용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인 1550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싸이월드(67.5%), 트위터(14.1%), 페이스북(12.6%), 미투데이(3.7%)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3.7%) 순으로 나타났다. 싸이월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53.6%가 '내 인맥'이 있다는 점을 꼽았고, 트위터 이용자는 51.1%가 실시간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16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온라인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10~40대 일반인 3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국내 SNS 이용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인 1550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싸이월드(67.5%), 트위터(14.1%), 페이스북(12.6%), 미투데이(3.7%)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시아나 항공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 모습

아시아나 생일떡 선물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 직원들이 16일 창립 23주년(17일)을 맞아 서울 금호아시아나 본사와 삼성동 도심공향터미널에서 고객들에게 생일맞이 사은 떡 2300개를 선물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임금반납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노동청 "혐의없다" 불기소 송치

노조 "검찰청 시위 계속"

금호타이어 노조가 경영진 구속을 요구하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광주지방법원노동청의 조치가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불기소 송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지방법원노동청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해 9월 광주고용노동청에 낸 '임금 5%·상여금 200% 반납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이 '혐의없다'며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 노조에 이같은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통지문에는 "임단협 합의서에 '삭감'과 '반납'이 구체적으로 구별돼 명시됐고, 별도의 단체협약 없이 임금이 원

상복구된다는 점에서 '반납'이 임금 포기 성격도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사측에서 노조측의 반발을 의식해 실질적으로 워크아웃 종결시까지 한 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되 표현을 임단협 합의서에 반납으로 했고 피의자가 이같은 의사로 진정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는 임금 체불이 고의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며 가두 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된 것으로 확인돼 투쟁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측은 "워크아웃 종료 후 즉시 임금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반납'이라는 용어를 썼을뿐 실제 의미는 '삭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만 외주화하기 때문에 사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며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여과된 검찰청 앞 집회를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원 7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경영진 구속, 도둑잡 저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사회공헌활동 팔 걸었다

전남본부 창립 50주년...농업인 복지증진 등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함께하는 농협,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협'을 만들고자 장학·의료·복지·문화 등 각종 사업 분야에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공헌활동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월 말 가족전염병 방역을 위한 임직원 특별 성금 1억원을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에 맡겼다.

또 (재)농협문화복지재단과 함께 최근 5년간 627명의 대학생에게 1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 여성대학(사진)'을 운영해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84가구에 2억5000만원을 들여 모국 방문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 여성대학'을 운영해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84가구에 2억5000만원을 들여 모국 방문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복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도 농업인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눔경영 활동을 적극

광주·전남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1월중 1억3700만달러...수출입은 소폭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과 수입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 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전월보다 1.0% 감소한 38억9500만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37억58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흑자 1억37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수출 부문에서 선박(26.1%)과 화공품(11.0%)이 증가했고 석유제품(-4.6%)과 철강제품(-2.3%)이 감소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화공품(29.6%)과 원유(3.9%)가 늘고 석탄(-4.7%)과 철광(-19.1%)이 줄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1월중 광주·전남 실업률 소폭 하락

취업률 광주 늘고 전남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1월 중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31.4%)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3.2%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64만7000명으로 전년 동

기 대비 2000명(0.3%) 증가했고 고용률은 55.1%로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39.3%) 감소했고 실업률은 2.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82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만7000명(-5.4%) 감소했고 고용률은 57.5%로 3.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손익 6조 보험사, 보험료 인하 외면

보험사들이 한해 6조원에 달하는 손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정장 보험료 인하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16개 주요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4~12월(1~3분기) 손이익은 무려 4조5400억원에 달했다. 올해 1~3월(4

분기) 실적까지 합치면 2010회계연도 손이익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9회계연도 보험사들의 총 손이익이 4조원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새 무려 50% 급증한 수익 규모다. 종신보험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생보사들은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1~3분기 손익이 3

조원을 넘어 2009년도 전체 수익(2조4000억원)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실적 잔치에 감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료 인하는 외면한 채 이익 쫓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차익을 거두면서도 보험료 인하 요구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품 광고 '아토피' 문구 못쓴다

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방한 불법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자 2

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89.08 (-21.41)
코스닥지수	520.08 (-0.80)
금리 (국고채 3년)	3.93% (-0.02)
원·달러 환율	1,120.30원 (+1.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